

인터넷 전화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일반전화기를 이용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듯이 인터넷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5년 인터넷 전화 기술이 처음 등장한 이후 초기에는 연간 100여건 미만의 출원됐으나 2000년 출원건수는 무려 1339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원 중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에 의해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친숙해진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기술개발을 할 수 있어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발명가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화 시장은 아직 완전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무선인터넷 분야 등 관련 통신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2005년에는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년 인터넷 전화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관련기술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1998년까지는 연간 100여건을 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287건으로 대폭증가하고 2000년에 들어서는 무려 1339건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화 관련기술 특허 출원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특허	11	84	65	275	1,250
실용	3	3	2	12	89
합계	14	87	67	287	1,339

이것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통신회사의 다이얼패드 개발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이후 개시된 별정통신서비스사업의 허용에 따라 국내인터넷 전화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관련기술을 앞다투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사를 거쳐 실제로 등록되는 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로 나타나 과다한 출원경쟁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출원내용을 보면, 초창기의 출원은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이 출원됐다. 이후 전화는 64Kbps, 인터넷은 6-16Kbps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궁극적인 문제점인 통화품질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 CODEC, 신호처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전송기술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통신장비 및 인터넷이 갖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출원되었다. 최근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분야로 확대되어 인터넷 전화의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광고, 결제, 예약, 쇼핑, 컨설팅 등 영업발명의 형태로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이전 출원인 분포는 삼성(10.1%), 대우(7.6%), LG(6.8%), 한국통신(5%), 현대(4.7%), ETRI(2.4%) 순이고 개인출원 및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출원은 현재까지 미국이 66건, 일본이 19건, 유럽이 6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특허출원을 준비중인 출원인은 무분별한 출원경쟁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보다는 인

터넷 전화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한 후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1/ 10/ 06 >